

“日무비자 입국 중단, 특별입국절차 시행”

외교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일본 방역, 불투명” 비판...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일본 방역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8일 오후 7시45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고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반면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

하고자 한다”며 일본 조치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내렸다.

조 차관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

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김포·김해·제주 중 공항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전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

민주 김운덕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예비후보(전주갑)가 당 경선 통과와 관련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본선에 임해 오는 4월 15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지난 4년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지역에서 활동했다. 쉽지 않은 경선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분들과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당 전주갑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역구 유권자와 지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역 감광수 의원과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예비후보는 “4년 전 20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 등이 맞물려 낙선했다”며 “더 새로운 모습으로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옥마을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대와 이중호수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드는 등 전주한옥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히고 “구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마스크 제조공장 직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엔텍을 방문해 일체건의사항 및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격려 말을 하고 있다.

민주, 전북 본선 후보 선정 마무리

김운덕·이상직·이강래 경선 승리로 도내 10곳 후보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0곳의 전북지역 지역구 본선 후보 선정을 마쳤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3일부터 시흥동안 실시한 경선에서 전주갑 김운덕 후보, 전주을 이상직 후보, 남원·순창·임실 지역에 이강래 후보가 승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주갑은 19대 의원을 역임한 김운덕 예비후보가 청와대 여성 비서관 출신의 김금옥 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에 올랐으며, 전주를 역시 이상직 예비후보가 청년 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이덕춘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전주병은 일치감치 단수 후보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군산 역시 단수공천된 신영대 예비후보가 본선행에 올랐다.

익산갑에서는 국회 사무차장 출신의 김수홍 예비후보가 3선의 이춘석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익산을에서는 한병도 예비후보가 김성중 예비후보를 꺾었다. 정읍·고창은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으며, 남원·임실·순창에선 4선을 노리는 이강래 예비후보가 판사 출신의 박희승 예비후보를 눌렀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도 청와대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이원택 예비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완주·진안·무주·진안 지역구는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유희태 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취재반

“마음껏 숨 쉬는 ‘익산 3법’ 약속”

민주 한병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익산을)가 익산시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민들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문제로 인해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라며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관련법을 개정해 익산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국에 악취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은데도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고작 7건”이라며 “악취배출 시설 자체개선제도 도입,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 등 시급히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악취방지 시책, 대기환경 개선 계획이 모두 10년 단위 장기계

획”이라며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처럼 5년 단위로 바꾸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두된 감염병 대응과 관련,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전북소방본부에 음압구급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당 공약에 발맞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도내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전염성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영유아·노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 종사자의 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익산형 달빛 어린이병원 추진”

민생 조배숙 예비후보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을)는 지난 6일, 주말과 공휴일 할 것 없이 24시간 어린이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익산형 달빛 어린이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밤 12시부터 18세 이하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료 시간을 더욱 확대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고상진 “문화도시 지정, 왕도 익산 정체성 확립”



민생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갑)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의 문화환경을 스스로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밝혔다.

그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비전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현황과 잠재성을 검토해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각각의 자원을 융복합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문화도시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민중심형 협업체 구축을 통한 창의적 프로그램 발굴, 유희공간 재활용, 문화자원을 연계한 보존육성·교육, 관광을 결합한 문화도시 조성, 익산시와의 공조체계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선거운동서 3無 실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서 3무(無)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3무(無)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 하는 네티즌 선거를 금지하고, 돈 선거를 하지 않고, 조직 동원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축제로, 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토론하고 인물 경쟁력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경제가 위기국면에 있고 사람 간의 접촉조차도 꺼리는 상황으로, 선거운동 역시 정책중심으로 과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이강래 후보, 정의당 정상모 후보에게도 3무 운동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